

광주·전남 연계 관광 ‘선 넘는 여행’ 눈에 띄네

‘2025 광주 방문의 해’ 이색 콘텐츠

MZ세대 SNS릴스챌린지·1박2일 팸투어
市 홍보종합플랫폼 ‘모두의광주’서 공개
지역 매력 발산...상생 관광 활성화 기대

광주시가 ‘2025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광주와 전남을 잇는 이색적인 여행 콘텐츠 ‘선 넘는 여행’을 선보인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선 넘는 여행’은 광주의 문화·산업과 전남의 자연자원을 연계한 1박2일 코스를 시민 참여형 콘텐츠로 구성한 것이다.

‘선 넘는 여행’은 광주시 홍보종합플랫폼 ‘모두의광주’(news.gwangju.go.kr)를 통해 공개된다.

첫 영상은 광주 댄스팀 ‘빛고을댄서스’의 리더 오현이 출연하는 예고편으로 시작해 4편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지난 20일 공개한 1편 ‘감성여행 MZ투어’ 열정 광주 VS 힐링 담양’은 MZ세대 대학생들이 두 팀으로 나뉘어 각각 광주와 담양을 여행한 뒤 이를 릴스 형식의 짧은 영상으로 제작해 사

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시민참여 투표 이벤트를 진행했다.

2편 ‘세대공감-손자투어’, 3편 ‘여름휴가는 탄소저감여행’, 4편 ‘모두의 축제’ 등 다양한 연령대와 관심사를 아우르는 콘텐츠가 이어질 예정이다.

광주시는 관광관광공사와 함께 MZ세대 인플루언서 및 1인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테마형 팸투어도 추진한다.

오는 7월17-18일 1박2일 일정으로 총 10명을 초청, 광주 도심에서 야구 특화 관광상품인 ‘야구광 트립’과 담양 죽녹원에서 힐링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또 전남 인접 시·군과 산업·역사 등 다양한 주제의 팸투어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박광석 대변인은 “‘선 넘는 여행’은 단순한 관광 홍보를 넘어 문화·산업·환경 등 다방면에서 광주·전남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프로젝트”라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와 팸투어를 통해 ‘2025 광주 방문의 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선 넘는 여행’ 시리즈를 통해 광주·전남의 매력을 동시에 알리고 방문객에게 더욱 특별하고 깊이 있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광주 관광의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은진기자



6·25 격전지 구 산동교서 태극기 행사

6·25전쟁 75주년을 앞둔 지난 20일 광주 북구 동림동 구 산동교에서 6·25전쟁 전적지 태극기 행사가 열려 6·25참전유공자회, 전문군경유족회, 어린이집 아이들이 태극기 퍼포먼스를 펼치며 다리를 건너고 있다. 구 산동교는 1950년 7월23일 북한군의 광주 점령을 막기 위해 군·경합동부대가 폭파했던 지역의 유일한 6·25전쟁 격전지다. <광주북구 제공>

대형세탁물 처리 지원 ‘마을 공동빨래방’ 호평

전남도·시·군 고향사랑기금사업

완도 등 4곳 운영...8곳 추가 선정

전남도가 고향사랑기금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마을 공동 빨래방’이 호응을 얻고 있다. 마을 공동 빨래방은 도와 시·군이 공동협력하는 고향사랑기금사업이다.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대형 세탁물 처리를 위한 대형 세탁기 및 건조기를 구입 지원한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완도 청산면 청산국민체육센터에서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된 ‘마을 공동 빨래방 공식 1호점’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업 시행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현판식은 전남고향사랑 실천의 출발을 알리며 전남도 및 완도군 기부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고향사랑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행사에는 신의준 전남도의원, 청산면 부녀회, 이장단, 번영회, 주민, 공직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마을 빨래방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와 시·군이 상생한 고향사랑기부제 사업 일환으로 ‘마을 공동 빨래방’ 기금사업을 발굴, 올해부터 완도 청산면, 여수 남면, 강진 성전면, 함평읍 등 4개소를 운영 중이다. 또한 올해 8개소를 추가 선정

했다.

청산면은 자연 경관과 다양한 전통문화 유산을 보유한 아름다운 곳이다. 노인 인구가 전체의 45%에 달하는 고령화 대응이 시급한 지역 중 하나로 빨래방 사업의 필요성이 큰 곳이다. 현재 거동 불편, 독거노인 등 1107가구 300여명에게 ‘원스톱 이불빨래 세탁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강경문 고향사랑과장은 “마을 공동 빨래방 공식 1호점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전남을 사랑하는 기부자들의 따뜻한 마음이었다”며 “도와 시·군이 상생해 고향사랑기금사업이 성공적이고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시원기자

전남도, 여름철 식중독 사전 예방 총력

여수서 관계기관 현장대응 모의훈련

전남도는 지난 20일 여수에서 식중독 사전 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식중독 발생 합동 현장대응 훈련을 했다. <사진>

훈련에는 전남도와 22개 시·군, 감염병관리지원단, 외식업중앙회전남지회, 집단급식소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훈련은 실제 식중독 발생 상황을 가정해 식중독 발생 상황 접수 및 보고, 관계기관 간 신속한 전파 및 현장출동, 식중독 원인·역학조사, 급식 시설 소독 및 조리종사자 위생 교육, 사후 조치 및 모니터링 등 단계별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뤄졌다.

훈련 후에는 유관기관 간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식중독 발생 시 추가 확산을 조기 차단하기 위한 협조체계 방안도 논의했다.

전남도는 식품안전성 확보와 도민에게 안전한 식품 제공을 위해 유통·소비 단계별, 품목별, 시기별 기획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배달음식 등 다중이용 시설 2만1천430개소와 학교·유치원 등 983개소를 집중 지도·점검하고 김밥·밀면 등 여름철 다소비 식



품 취급업소와 식중독 우려시설 800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집단 식중독이 우려되는 대규모 지역축제와 행사 시 식품안전관리 방안을 마련도록 지도하고 행사장에서 제공되는 메뉴 및 식음료 안전관리를 강화해 ‘식중독 제로화’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권장주 식품의약과장은 “최근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식사하도록 식중독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市,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2차 접수

10월까지...접근성 개선·지원 기간 확대

광주시는 22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참여자를 오는 10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3·4월 진행한 1차 모집에서 배달노동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확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차 모집을 실시한다.

2차 모집에서는 노동자 접근성과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 경로를 추가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했다.

또 1차 모집에서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6개월 간 산재보험료를 지원했으나 2차 모집에서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1년 간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며 지역 내에서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배달노동자 및 배달대행 사업주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노무제 공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신청은 광주시 누리집에서 공고문과 신청서를 확인한 후 전자우편(jmild425@gjeop.or.kr) 또는 현장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이계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이 사업은 산업재해 예방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물론 배달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에 의미가 있다”며 “배달노동자 권익 보호와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진기자

자연도, 부모님도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 사용기한 없음 / 365일 관리 / 광주에서 20분 / 무료 안치

광주수목장 문의 062.449.4446